

정운찬 총리 낙점과 정국 향해

총청 아우르고 박근혜 견제하고

與 차기 대선 절대우세 지형 확보 '개혁 총리' 행보땀 野 역할 위축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신임 국무총리 내정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총청 출신인데다 잠재적 대권주자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당장,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정운찬 총리 카드가 여야 관계는 물론 여권 내부의 역학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화합과 통합이라는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 총청권 등 중원 공략을 둘러싼 정치권의 지형변화는 물론 차기 대선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단 여권에서는 정 전 총장의 총리 기용은 사실상 '불모지'나 다름없는 총청권 공략의 고두보수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 '정치적 중원'으로 불리는 총청권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오면서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자유선진당 출현 이후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여권은 그간 차기 대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총청연대를 적극 모색해 왔다. 당장 정 총리 후보자가 직접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의 역학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여권 내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의 일방적 독주체제인 차기 대선구도에 일정부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특히, 친이(친이명박) 진영 내부에서 박 전 대표 대항마를 키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종종 거론돼 왔다는 점은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 측은 "차기 대선구도와 관련해서 정 총리 내정 카드가 큰 의미가 없다"며 초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정 총리 발탁의 정치적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정 총리 카드는 여야 관계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 총리후보자가 지난 17대 대선에서도 잠재적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등 진보진영으로 분류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이 정 총리 후보자 영입과 함께 국민통합을 내세워 야당의 지지기반 잠식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새로운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 후보자의 지금까지 행보가 개혁성향에 가까웠던 점을 풀이해 보았을 때 '정운찬 카드'는 여당의 현실론과 야당의 이념을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 그만큼 야당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앞으로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에서 야권의 과잉공세와 함께 취임 총리직 수행 과정에서도 야당의 견제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3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은 주호영(오른쪽) 특임장관 후보자와 최경환(가운데)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당혹

"아권주자 기대 했는데..."

민주당은 3일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이명박 정부의 차기 총리로 지명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아권의 차기 대권주자군에 포함 정도로 기대를 걸었던 정 전 총장의 선택지가 민주당이 아닌 이명박 정부라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는 것. 이경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총장 개인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내가 정 전 총장에게 환상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허탈해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정 전 총장 영입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정장선 의원은 "우리가 자주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일부 의원은 "허를 찔린 것 같다"는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아권 대통령직

은 제자리 걸음인 상황에서 '정운찬 총리 카드'로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과 친(親)서민 정책에는 가속도가 붙게 됐다는 것. 총남 공주 출신인 정 전 총장의 총리 지명이 중부권에서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정 전 총장에 대한 평가절하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권은 정운찬 총리 카드에 중도실용과 총청권, 지식인 등 수식어를 많이 붙이려고 하겠지만 결국 헛일일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친노 386으로 분류되는 한 재선의원은 "정 전 총장은 친이와 친박 구도속에서 차기 여권 후보로도 성장하고 싶겠지만 움직일 공간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친박, 무덤덤

"최경환 입각 의미 안둬"

한나라당 비주류인 친박(친 박근혜) 진영은 3일 같은 계파인 최경환 의원의 입각에 애써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분위기였다. 친이(친 이명박)-친박 화합의 상징으로 여겨져온 '친박 입각'이 성사됐는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 다만 일부 친박 의원은 씩 내키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한 핵심 의원은 "그들이 필요해 개인적으로 접촉, 자질과 능력을 보고 인정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말하지 않겠다. 요란 떨 것 없다"고 했다. 다른 의원은 "친박의 대표가 아닌 개인적 선택이니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다"고 언급했고 또 다른 의원은 "(주류의) 포용이나 화해로는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제 전문

가인 최 의원이 각료직에 발탁돼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것일 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간 화해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계파 화합'으로 비약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친박에서도 이번 입각을 두 진영간 '소통'의 발판으로 해석하려는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 중진 의원은 "입각은 이 대통령과 박 전대표의 향후 관계에서 긍정적인 예고지표로 봐야 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중진은 "분위기가 부드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친박 측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자는 유보적 자세를 취했다. 박 전 대표의 대선행보에 제동을 걸기 위해 '대항마'를 띄우는 것이라는 분석도 대두된다. 그다지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인 대거 입각 의미

3일 단행된 개각에서 임태희(노동부 장관), 최경환(지식경제부 장관), 주호영(특임장관)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발탁됐다. 이로써 16명의 장관 가운데 정치인 출신은 이달간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제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 전체의 30%인 5명이나 포진하게 됐다. 이 같은 정치인 대거 발탁은 무엇보다 당정은 물론 민심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중도 실용 및 친(親)서민 행보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민심읽기가 급선무라는 점이 감안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당정 간에 정

당정·민심과의 소통 강화 포석

친이 2명·친박 1명 중용... 당내 통합도 염두에 둔 듯

책 잡음 및 엇박자가 이어져 왔다는 점도 한나라당에 문호를 넓힌 배경으로 꼽힌다. 즉,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정부적 감각을 적극 활용,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집권 2기 국정 운영에 있어 한나라당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한나라당에는 힘이 부족 실리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나라당 일각에서 '집권여당 맞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왔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정 전반에 있어 여당의 위상도 새롭게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개각으로 당정 간의 소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여권의 국정운영이 보다 탄력을 받

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친이(친이명박) 진영에서 2명(임태희, 주호영), 친박(친박근혜) 진영에서 1명(최경환)을 나란히 중용한 점을 놓고 이번 개각이 당내 통합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 전 총장의 국무총리 내정으로 당내 통합형 내각을 얘기하는 목소리는 그리 높지 않은 현실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심대평 "창당, 모든 가능성 열어둬"

자유선진당을 탈당한 심대평 전 대표는 3일 신당 창당 가능성과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역과 국가를 위해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면 모든 것을 바쳐 일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홍지명의 SBS 전망대'에 출연, "지금은 반성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총청권을 기반으로 독자세력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심 전

대표는 복당 가능성에 대해 "(당의 복당 주장은) 총청인에게 보내는 립서비스라고 인식한다"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출당조치까지 운운하며 막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을 깊이 생각해달라"고 일축했다. 그는 자신의 총리설을 둘러싼 이회창 총재와의 진실공방과 관련, "국민에게 송구하다"면서도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성 없는 반성 없이 누구 탓이냐고 하는 공방으로 끝고 가는 것은 국민에게 민망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장급매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9번도로

- 대지 : 13,200㎡ (약 4,000평)
- 건물 : 6,600㎡ (약 2,000평)
 - 냉동저온창고 3,300㎡ (약 1,000평)
 - 일반창고건물 3,300㎡ (약 1,000평)
 - 현재 냉동저온창고 성업중
 - 물류가능
 - 기계기구 일체 영업권 포함 급매
- 가격 : 상담 후 결정

☎ 010-3617-8810

사/원/모/접

모집부문	모집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식음료파트	남,여 0명	웨이터,웨이츄리스	신입 및 경력
그늘집	여 0명	판매담당	주부가능(40세 이하) 컴퓨터 활용 가능자

-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서류심사 합격자 한해서 개별통보)
-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 접수처
 - 이메일 및 우편접수 가능
 - 이메일 : mannerwang@hanmail.net
- ▶ 근무조건
 - 4대 보험가입, 기숙사제공, 우수사원표창
 - 경조금, 의료비지원
- ▶ 기타사항
 - 경영지원팀 최관식대리
 - 연락처 : 061)320-7716

합평다이내믹센터 컨트리클럽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2008.11월부터 2,000㎡(605평) 이상 건축시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2명 이상 채용하여야 건축허가 가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 ◆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의거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꼭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 또한, 제5조에 의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 ◆ 교육일정 2009. 9. 7.부터(월·수·금) 총60시간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국토해양부 지정(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 원 장 이명규 교 수 062-670-2421
- 부원장 강동욱 변호사 062-233-3119
- 사무국 김병철 062-233-3119

문의/전/화 www.gred.kr